

특특뉴스

신한카드·우체국 '연 9.2%' 적금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 등으로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한카드가 우체국과 손잡고 최근 최고 연 9.2%짜리 적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정사업 본부는 최근 '우체국×신한카드 우정적금'의 금리를 최고 연 8.95%에서 9.2%로 높여 판촉에 나서고 있다.

적금 가입기간은 1년으로 월납입 한도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기까지 자유적금 유지 시 기본금리 2.15%에 우체국 우대금리 0.4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특별리워드로 금리 6.6%가 추가 적립돼 총 9.2% 상당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 경제



세계식량가격지수 최고치 유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난 3월 159.7포인트(p)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달까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식량가격지수가 월평균 각각 95.9p, 95.1p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월평균 125.7p에 이어 올해 3월에는 160p에 육박했다.

갈등 넘어 '상생·화합의 길' 해법 모색해야



광주시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TF'를 구성하고 "한달 내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형쇼핑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갖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하고 있을지 의문도 낳고 있다.

광주시는 과거 복합쇼핑몰 유치 소식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시민·소상공인 등 혐오와 분열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제 관련된 기업·기관에서 주민 간 갈등과 건립 부지 인근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상생·화합을 기조로 한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야 할 차례다.

14일 광주시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체 업체 종사자 48만 7,364명의 39.6%를 차지하는 19만2,85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11만4,143개의 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가 9만7,138개로 전체의 85.1%를 차지한다.

시장·소상공인 생존권 쟁점 예상
백화점 선례 교훈 삼아 방안 강구
전남방직 '문화유산 보존' 목소리
어등산 '확실한 공공성 확보' 난제

과거 수차례 정치권과 상인들의 반대에 막혔던 전례를 미뤄볼 때 유통업계와 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들과 상생 방안 마련이 가장 큰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갈등 해소를 위해 과거 지역 내 백화점은 인근 전통시장과의 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3년 동구 대인시장과 상생협력을 맺고 노후 상점을 고쳐주는 리모델링 봉사, 상인 대상 서비스 및 판매기법 교육, 상인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또, 2018년에는 전자의거리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이곳을 찾은 방문자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거리 내 각종 공연과 가요제 이벤트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광주신세계 또한 서구 서부시장과 양동시장에 선풍기 지원, 주차장 운영 지원, 문화·서비



일신·전남방직 /전남매일 DB

스 아카데미 개최 등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상인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소상공인의 타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상의 방안을 찾아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히는 곳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유치 의사를 밝힌 북구 임동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가네가후지방직이 동구 학동에 세운 '전남공장'에서 시작됐다. 일제 강점기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현재 보존된 건축물만 총 259동에 달한다.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설물 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그룹은 산업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공원'을 조성하겠

다는 계획을, 광주시는 근대 건축물 보존, '라키비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건립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적고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인근의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현대는 인근 기아챔피언스필드와 연계해 '야구인의 거리' 계획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기아타워거즈 경기가 있는 날은 야구장 인근 도로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전가되고 있어 특단의 교통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다른 유력 후보지 광산구 어등산 일대는 광주시 소유가 소유하고 있어 개발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 전망이 있었지만 17년간 장기표류 중이다. 이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해법을 빠른 시일 안에 찾기 어려워 보인다. 또, 공유재산인 만큼 확실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근 상인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어등산 개발은 6개월 안에 답을 내기로 한 지역 현안중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8일 국민의힘과 예산 협의회를 열어 복합쇼핑몰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끝> /홍승현 기자

전남우정청-영광군, '복지등기' 업무협약

위기가구 지원 사회안전망 역할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공익재단, 영광군과 함께 '복지등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등기' 사업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모델로 전국 3,500개 우체국과 4만3,000여 명의 우체국 종사자가 지자체와 협업해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영광군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며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집배원이 주기적으로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

악한다. 이후 지자체에 복지가구 정보를 전달하고 지자체는 긴급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확인해 신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관호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은 늘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했다"면서 "지자체와 적극협력을 통해 우정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은 "복지등기 사업사업은 우체국과 지자체 간 새로운 협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우체국과의 복지등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공익재단, 영광군과 함께 '복지등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우정청 제공

기 시범사업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촌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